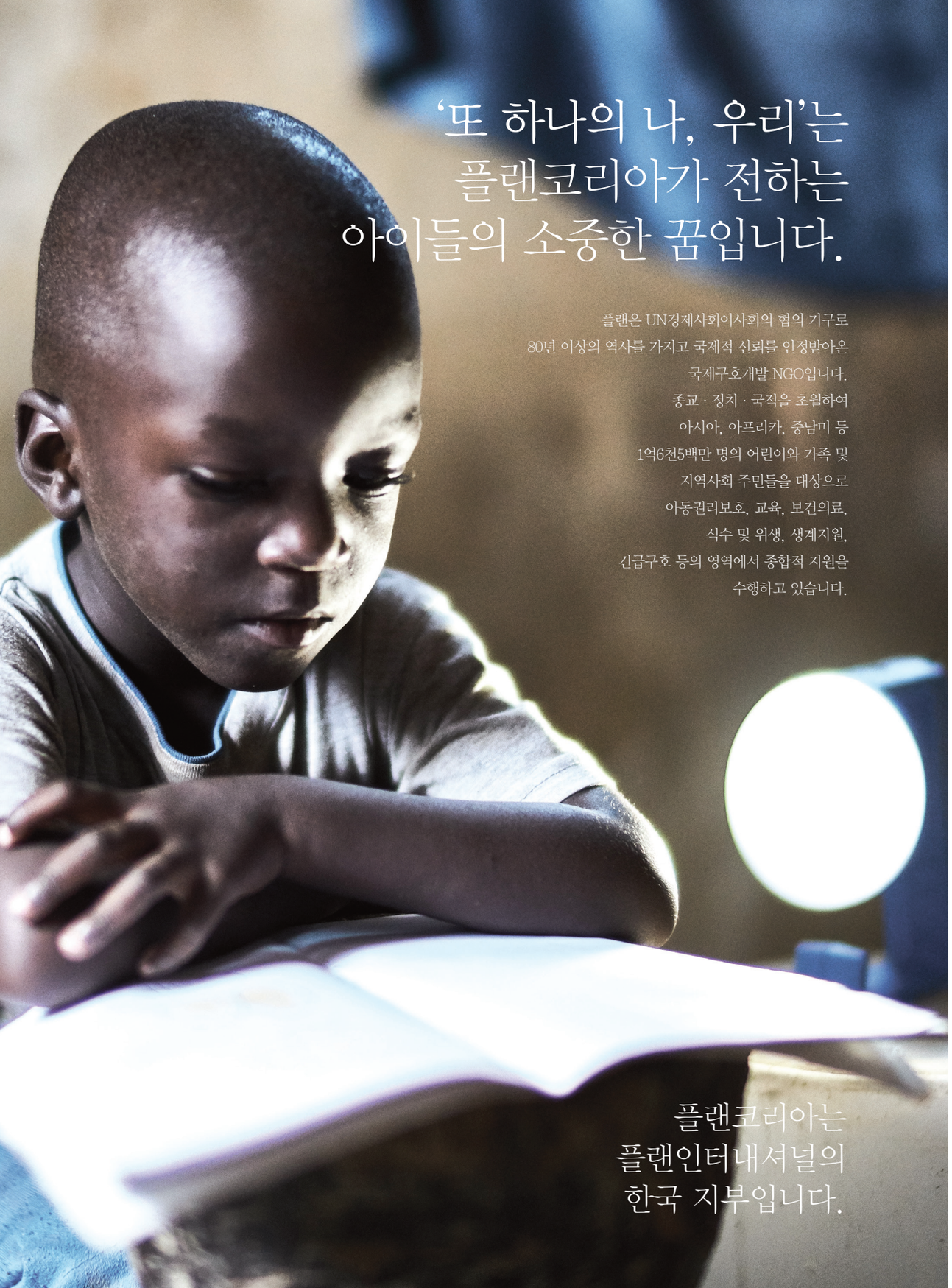
AUTUMN 2017 **Vol. 80**

또 하나의 나, 우리



CONTENTS

또 하나의 나, 우리 AUTUMN 2017 Vol. 80

04 **Plan Report**
We are the next ‘Leader’

06 **아주 특별한 만남 1**
걸스카우트와 소녀들의 권리를 외치다!

08 **지구촌을 간다 1**
꿈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자랍니다

10 **지구촌을 간다 2**
Dream Village 두 번째 이야기

12 **지금 만나러 갑니다 1**
제10회 The좋은여행 ‘네팔’

16 **지금 만나러 갑니다 2**
배달의 플랜

22 **아주 특별한 만남 2**
양친회 초대 대표 가족과의 만남

24 **사랑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28 **지구촌을 간다 3**
Share Together! Happy Together!

30 **나눔의 행복**
현대자동차 서비스사업부

32 **지구촌을 간다 4**
꿈을 위한 길을 만들다

34 **아주 특별한 만남 2**
꿈의 나래를 펼쳐봐!

36 **꿈꾸는 아동편지**

39 **Enjoy Plan**

40 **Plan News**

www.plankorea.or.kr **후원문의** 1544-3222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플랜코리아 @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통권 제80호 **발행일** 2017. 9. 25 **발행인** 노영찬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55.5612

BECAUSE I AM A GIRL

WE ARE THE NEXT LEADER

교육의 힘

빈곤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플랜은 그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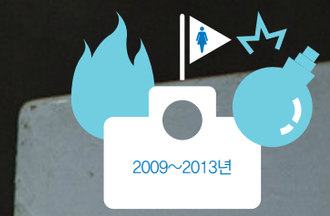
교육을 받은 아이는 사회 전체에 이로운 변화를 일으킬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은 변화를 만들고, 빈곤의 굴레를 끊어내고, 이 사회가 더 평등한 곳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랜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비율은 여전히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최소 1억 명 이상의 여자아이가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1억 명의 이상의 여자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내일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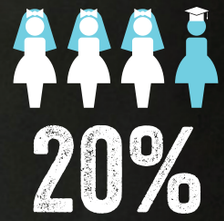
GIRLS IN EDUCATION

초등학교 내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학교 피습이 발생했다.
공격의 주된 이유는
남녀평등과 여성교육권,
주된 대상은 이를 지지하는
학생, 주민, 교사였다.

오늘날 남수단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임신 혹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할 확률이 3배 낮다.



교육을 받은 소녀는
그렇지 않은 소녀에 비해
18세 이후에 결혼하는
비율이 3배 높다.

브라질 여성의 취업률은
초등 교육을 통해
50%로 증가했다.
중등 교육을 통해서는
60%로 증가했다.

올바른 육아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의 양육으로
5세 미만 영유아
21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BECAUSE I AM A GIRL

걸스카우트와 소녀들의 권리를 외치다!

지구촌 소녀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에 걸스카우트가 함께 나섰다.
플랜코리아와 한국걸스카우트는 전 세계 소녀들의 기본 인권에 대해 알리고,
개발도상국 소녀들을 위해 모금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8월 3일, 여주시 남한강변 당남리섬에서 개최된 제16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에서 특별한 카드섹션 이벤트가 진행됐다. 2천여 명의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소녀 형상'과 '꿈'이라는 글자를 함께 만들어 지구촌 소녀들의 꿈을 응원했다.

Did you know

1.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만 명**의 여자아이가 남아선호사상의 폐해로 **낙태**되고 있다.
2.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자아이는 **6천2백만 명**에 이른다.
3. **18세 이하** 여자아이들이 **3초**에 **1명씩** **조혼을 강요**당하고 있다.

플랜코리아 김지민 홍보대사가 참여해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플랜코리아 홍보부스에서는 소녀들의 꿈을 위한 응원메시지 쓰기와
드림캐쳐 만들기, 포토이벤트 등 다양한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랜코리아와 걸스카우트가 함께 진행하는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전 세계 소녀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화를 통해, 모든 여자아이들이 각자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걸스카우트 대원들의 모금활동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출생등록 지원에 사용된다.

걸스카우트 소녀들의
아름다운 행보가 기대된다.

글 플랜코리아 홍보팀
사진 스튜디오조단 원상희

꿈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치원에 가득하다.
오늘처럼 매일매일 아이들의 삶이 웃음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길 바라본다.

캄보디아 씨엠립 타프록 마을에 아주 특별한 놀이터가 건립됐다.
이번에 건립된 꿈의 놀이터는 저개발국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도록
플랜코리아와 JDB엔터테인먼트의 지속적인 Joy & Dream 캠페인으로 모아진 수익금으로 건립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Joy & Dream 캠페인은 저개발국 아이들의 권리신장 및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 교육 공간 개선 ·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자 개그맨 홍보대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진행중인 캠페인이다.

타프록 마을의 작은 유치원은 사유지에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새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벽돌로 지어진 튼튼한 유치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선물하고자 김대희 · 조윤호 두 홍보대사가 나섰다.

우기를 맞아 습한 날씨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두 홍보대사는 땅을 고르고 자재를 나르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공사에 참여했다. 현지 주민과 직원의 도움이 더해져 알록달록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놀이터가 완성되었다.

놀이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대희 홍보대사와 동행한 가족들은 직접 준비한 색칠공부 도안으로 아이들과 미술교실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잡채, 주먹밥 등 한국음식도 직접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도 챙겼다. 놀이터 건립 지원금을 후원한 에버랜드에서도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해 아이들을 위한 의류와 장난감을 선물했다.

놀이터 조성을 위한 모금부터 홍보 캠페인, 그리고 현장을 직접 찾아 공사에 참여하기까지… 이번 Joy & Dream 캠페인은 어느 곳 하나 개그맨 홍보대사들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됐다.

Joy & Dream
꿈의 놀이터
영상으로 만나기

Dream Village
두 번째 이야기

송재림 홍보대사가
두 번째 드림빌리지 진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다.
'드림빌리지'는 모든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송재림 홍보대사가 직접 기획한 캠페인이다. 지난 2년간 캄보디아에서
1차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캠페인 진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았다.

드림빌리지
두 번째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기

글 플랜코리아 홍보팀
사진 스튜디오조단 원상희

캄보디아에서의 1차 드림빌리지가 우물 및 보건소 개보수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차 드림빌리지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행하는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Safe School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쓰나미를 비롯해 홍수, 사이클론, 폭풍해일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실제로 자카르타 지역 학교의 25%는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학교가 오래되어 재해대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실정이다. 플랜은 이러한 위험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Safe 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두 학교는 강 근처에 위치해 매년 홍수와 화재 등 큰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했다. 이미 씨엠립에서 우물공사와 보건소 개보수 공사 경험이 있는 그에게 고된 공사 작업은 익숙했다. 힘껏 내리치니 빠져버리는 삽 머리와 뜨거운 날씨는 저개발국에서 늘 마주하는 문제지만 이젠 익숙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작업도 구경 온 학생들과 하나둘, 돌을 옮기다 보니 어느덧 끝이 보인다.

송재림 홍보대사는 아이들과 함께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 훈련에도 참여했다. 머리를 다친 환자,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응급 환자를 이동하는 간이침대를 만드는 방법까지 아이들의 능숙한 시범이 이어졌다. 그는 기꺼이 아이들을 위해 오늘의 응급환자가 되어주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에 아이들의 웃음이 터졌다. 지역 소방서와 협력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훈련들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니라 노래와 춤 그리고 게임과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통한 방법으로 학습되고 있었다.

쓰나미나 폭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또다시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지 않길,
학교만큼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안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되길 꿈꿔본다.

제10회 The좋은여행
'네팔'

역대 최장기간인 7박 9일의 일정으로,
'후원자와 함께하는 플랜코리아 The좋은여행'이 한여름의 어느 날 시작됩니다.
이번 방문지는 네팔의 남쪽 고산지대 마칸푸르(Makwanpur)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첫 만남

첫 일정은 '후원아동방문'입니다. 처음 후원자를 만나는 아이들의 표정이 한껏 수줍음으로 물듭니다. 후원자님은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조심스럽고 따뜻한 표정으로 아이들과 눈인사를 나눕니다. 후원자님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순수하고 맑은 플랜의 후원아동 답습니다. 이내 손짓과 눈빛으로 말하는 소소한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플랜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플랜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교, 여성권리 신장 모임,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가족의 집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플랜의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에서 어떤 성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곳

셋째 날 일정으로 청각장애학교 방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즉석 사진기, 풍선, 판박이 스티커, 그리고 마주 보며 전하는 미소입니다. 네팔 전통놀이를 배워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한 대지진의 흔적, 그러나 계속되는 희망

2015년 4월 네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마칸푸르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건물과 주택이 무너졌고, 복구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복구가 한창인 현장을 방문한 우리 모두는 이내 숙연해집니다. 플랜은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원래의 삶을 되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구호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게 웃으며 한국의 후원자들을 환대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또 만나는 그 날까지, 잘 지내요!

매일 내리는 비, 비포장도로, 고산지대를 오르내리는 일정은 고되기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이어지는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환대는 힘듦도 잊게 하였습니다. 백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후원 지역을 방문해 어린이를 직접 만나고 플랜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The좋은여행. 앞으로도 알찬 일정으로 많은 후원자님이 나눔의 기쁨을 맛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플랜코리아 후원관리팀

따뜻했던
7일간의 기억

나는 지난 2012년 10월 플랜코리아를 통해 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달 후원금 결제 문자와 연간 후원아동 성장보고서를 받으면 "내가 정말 후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곤 했다. 이번 여름 네팔 The좋은여행 공지를 받고 나는 핸드폰 화면에 캡쳐까지 해두고 내내 고민했다. 결국, 접수 기한 1주일을 남기고 신청을 하게 되며 나의 네팔 The좋은여행이 시작됐다.

일정은 순조롭게 시작됐다. 제일 처음 우리는 플랜네팔 사무소로 이동했다. 플랜네팔 직원이 직접 활동 현장에 나가는 우리를 위해 이곳의 치안상태, 플랜의 네팔 내 활동 역사 및 현황, 후원아동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 사전 설명을 해주셨다. 이후 차를 타고 깊고 험한, 꼬불거리는 산을 5시간이나 넘은 후에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 헤타우다에 도착했다.

첫 번째 일정은 후원아동과의 만남의 시간이었다. 한 후원자가 자신의 후원아동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서로 인사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다.

조금은 쑥스러워하는 후원아동과 함께 사진을 찍고 과자를 나눠 먹다 보니 어느새 분위기는 더 편안해졌고, 아이들은 어린아이다운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자연스레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나의 후원아동 말라키를 떠올렸다. 우리는 플랜의 지원을 받는 후원가정과 마을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듣기도 했다.

오후에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성대한 환영 인파와 전통 민속 공연이 우리를 위해 준비돼 있었다. 방학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많은 학생이 나와 있었고, 후원자인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한 것 같았다. 어떤 학생이 나를 보며 "후원자님 보고 싶을 거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한 사람의 작은 후원이 모여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가우리타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했다. 모두 함께 그곳의 학생들과 몸짓, 손짓 게임을 하며 조금씩 친해졌다. 평소 풍선이라면 터질까 무서워하던 내가 어느새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듯 서로 풍선을 튀기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오후에는 재난재해 대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으로 구성된 Safe School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반샤 고팔 중학교를 방문했다. 2015년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네팔정부는 지진 대비 훈련을 학교에서 진행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지진 발생 시 대피훈련 과정을 보여줬고 이후 플랜이 학교 곳곳에 설치해 둔 재난재해 대비 시설을 확인했다. 그 곳의 학생들이 꽃을 주며 환대한 그때의 평화로운 학교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했던 골모드라는 지역은 제일 마음이 쓰이는 곳이었다. 2015년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라는데 여전히 피해복구가 많이 되지 않은 듯했다. 우리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피해복구 현장 작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산꼭대기에 있는 이곳 지역의 아이들 또한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 꽃을 준비해 주었지만, 산간지역의 서늘한 공기와 휑한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마냥 편안할 수만은 없었다. 이렇게 골모드까지 방문하고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리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처음 The좋은여행을 신청할 때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장면을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싱그러운 눈망울, 천진난만한 마음을 더 많이 만났고, 따뜻하고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미래를 만나고 왔다.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7일간의 일정이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여행 중에서도
"THE"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휴가이자,
여행이자, 아이들과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글 김자은 후원자

“후원자님의 편지와 선물을 후원아동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라!!”

내가 보낸 편지가 후원아동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후원아동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언제나 궁금한 후원아동의 소식.
멀리서 응원하는 것에만 만족해야 했던
후원자님의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수경 홍보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아동에게 전하고
아동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후원자님께 전달하는 ‘배달의 플랜’
이번 배달지는 필리핀 북사마르 섬의 로페드베가 마을입니다.

플랜 1.
후원자님의 편지와 선물을 수령하라!

인천, 김포, 부산, 창원, 춘천에 살고 계신 후원자님을 직접 찾아뵙고 아동에게 보낼 편지와 선물을 전달받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각종 학용품, 예쁘고 멋진 옷, 그동안 편지로 주고받던 아이들의 선호사항을 꼼꼼히 반영한 장난감과 인형까지...

마지막으로, 늘 편지로만 주고 받던 후원자님의 소식을 아동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편지를 찍으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까지 꼭꼭 눌러 담아, 후원자님의 선물과 편지 수령 완료!

플랜 2.
후원아동이 살고있는 마을을 찾아가라!

장마철을 맞자 끝없이 비가 쏟아져 지연되는 비행일정에 한참을 기다려 드디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출발했습니다. 마닐라에서 잠시 휴식 후 이른 새벽, 하루에 겨우 한대만 운행된다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북사마르 섬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외길을 따라 굽이굽이 차로 또 한 시간. 꼬박 하루만에 우리는 아이들이 사는 로페드베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로페드베가 마을 찾기 완료!

"편지 전달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됐어요."
- 이수경 홍보대사

플랜 3.
후원아동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라!

드디어 아이들에게 꾸러미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인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좁은 골목을 지나야 나오는 집으로, 플랜 사무실로 직접 찾아온 아이까지 다섯 명의 아이들을 모두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이동했습니다. 외국인이 낯설어 어색해하던 아이들은 후원자님의 영상 편지와 선물을 받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오늘만큼은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스타입니다. 후원자님의 영상 메세지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처음 듣는 후원자님의 목소리와 얼굴을 유심히 보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길었던 여정이 한 순간에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과 편지 전달 완료!

"제게 이런 선물을 주려고 누군가 찾아온 것이 처음이에요."
- 잔마크 (고한울 후원자 후원아동)

플랜 4.
후원아동의 영상 편지를 찍어라!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선물과 영상편지에 아이들이 함박웃음을 짓는 걸 보니,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자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남겨봅니다.

함박웃음으로 답하는 아이, 부끄러워 엄마 뒤에 숨어버리는 아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후원자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사랑은 모두 진심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원아동의 영상 편지 찍기 완료!

플랜 5.
후원자에게 후원아동의 영상 편지를 전달하라!

다섯 분의 후원자님을 다시 찾아가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까지가 배달의 플랜 임무였습니다. 그동안 서류와 프로필 사진으로만 만나던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생생한 모습으로 마주한 후원자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아이들의 영상과 사진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후원자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끈끈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후원자에게 후원아동의 영상 편지 전달 완료!

한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먼 나라에서 전해온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아이들에게 큰 용기가 되어 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감동으로 마무리 된 ‘배달의 플랜’은 이제 시즌 2로 또 다른 감동을 준비합니다.

후원자님과 함께 만드는 감동은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이수경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배달의 플랜
영상으로 만나기

아버지가 받은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양친회(養親會) 초대 대표 가족과의 만남

한국 전쟁 이후, 10만 명의 전쟁 고아 중 양친회(養親會)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전라북도 임실의 거리를 헤매던 아이는 당시 한국 양친회를 이끌던 로버트 윌리엄 세이지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듀크 세이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아이는 푸른 눈을 가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듀크 세이지는 가정을 이뤘고 그 자녀도 성장해 성인이 됐습니다. 그는 늘 그리워하던 고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그 자녀가 아버지가 늘 그리워하던 '한국'을 찾아 의미 있는 방문을 합니다. 아버지의 뿌리를 찾아나선 듀크 세이지 주니어 가족의 여정에서 그 옛날, 누군가 나누었던 사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를 통해
나의 아버지가 받았던 사랑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뿌리를 찾아서

제 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당시 양친회 대표를 지내셨던 조부님께 입양되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전 한국과 친가족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얼마 전 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께서 남기신 많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크게 내색하지는 않으셨지만 항상 이곳을 그리워하고 친가족을 찾고 싶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버지의 고향이자 나의 뿌리이기도 한 한국에 방문해 아버지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 속에서 '임실'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났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사무소를 수소문해 아버지의 먼 친척을 찾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맞잡은 손에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누어 준 사랑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불과 60년 전만해도 전쟁의 상처가 가득했던 한국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다른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되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성장의 시간 가운데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아버지의 뿌리를 찾고 플랜코리아를 통해 아버지가 받았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참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과 함께 이름은 변했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65만 한국 전쟁고아의 희망,
양친회(養親會)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섰다는 안도감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인구의 70% 사망, 교통 및 산업 등의 사회기반시설 80% 파괴.
그리고 약 10만 명의 전쟁고아와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그 아이들…
1953년, 우리를 찾아온 플랜코리아는 '양친회(養親會)'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전하며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플랜코리아'의 활동

양친회의 활동기간 **26**년

지원 금액 **2,700만** 달러

지원 아동 **65만** 명

지원 가구 **23,200**세대

생활 시설(보육원) 보호 아동 **2,500**명

아동복지 시설 **25**개

무료 진료 지원 인원 **20만** 명

의료 시설 **3**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가장 큰 피해자 역시
어린아이들입니다.

한국의 전쟁고아들을
도운 첫 마음 그대로
플랜코리아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의 이름,
플랜코리아

이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이고
우리 앞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IT 강국,
문화 한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TV 뉴스와 신문 기사의 숫자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아동복지현황 (2010~2015년)

124% 증가
아동학대 의심 건수

38.4% 감소
급식지원 아동 수

취약계층 국민기초수급자 비교 (2010~2015년)

15.1% 증가
전체 평균

47.9% 증가
한부모가족

62.2% 증가
미혼부모가족

47.0% 증가
조손가정

당신의 사랑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주거 빈곤 아동 129만 명 중 **비주택 거주 아동 3만 명.**
비주택 거주민의 **평균 거주 기간 약 14년.**
그들의 **43.9%**는 **고립된 지역**에 위치.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中

전체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29만 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중이며, 그중 약 3만 명의 아동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촌 등의 비주택 거주자입니다. 만약 아동이 이곳에서 태어난다면, 아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영유아기(0~7세) 및 아동기(8~13세)를 모두 이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비주택 거주 가정의 약 50%는 주소가 불분명한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이웃과의 교류가 차단됩니다. 그 결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존재를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 되어 아동은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게 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만드는 아이들의 미래

신체건강
곰팡이, 해충, 높은 습도로 인한 호흡기, 피부 질환 및 면역력 약화

정신건강
환기, 채광, 놀이 공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낮은 자존감 형성

학교 부적응
학업 부진 및 사회성 발달 부족으로 부적응 경험

위험 환경
화재, 수해 등의 자연재해 및 범죄, 학대 등의 폭력에 노출

비닐로 만든 우리집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대형 비닐하우스 농원.
그 중 가장 작은 비닐하우스에는 6살, 현수(가명)가 삽니다.

집 없는 아이, 현수

여름엔 뜨거운 태양과 벌레, 겨울엔 칼바람과 꽁꽁 언 수도.
사계절 꽃을 피우는 **비닐하우스**이지만
아이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철책선 인근 마을의 마지막 아이, 그래서 언제나 혼자인 현수.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는 농원에서 일하는 아빠.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 말이 늦어진 아이는
오늘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혼자 뛰놉니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 받을까 걱정돼요"

비닐하우스가 아빠의 **일터**가 된 지 20여 년.
어느새 이곳은 가족의 **집**이 되고
아이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올여름, 지독했던 폭염을
비닐하우스에서 보낸 현수네 가족에게
'진짜' 우리 집을 선물해주세요.

현수네 이야기
더보기

삼성물산(상사) 미얀마 임직원 해외봉사단

Share Together!
Happy Together!

지난 7월, 삼성물산(상사) 임직원 해외봉사단은 미얀마 양곤 달라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던 저 또한 입사 후 정신없이 지내던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싶은 마음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첫 사전 모임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준비사항에 놀랐습니다. 미얀마에 관한 공부, 봉사단 활동에 대한 모든 일들… 잘해낼 수 있을지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내 이번 활동을 통해 스스로 얻게 될 것 또 제가 해낼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다소 어색했던 봉사단 동료분들과도 꽤 친해지게 될 무렵 우리는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달라 초등학교로 걸어가는데 미얀마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하얀 다나카 가루를 예쁘게 바른 아이들이 옹기종기 손을 흔들며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토록 예쁘게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환하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활동은 놀이터 조성, 통행로 조성, 학교 외 · 내벽 페인팅 및 벽화 그리기, 신발장 제작, 문화교류였는데 작업량이 많아 우리가 일정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을 하기도 하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봉사단원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일정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일정의 마지막 날, 계획한 모든 작업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동 종료 후 다 같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데 처음의 열악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말끔해진 모습에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행복해하니 더욱 보람찬 마음이 들고 행복했습니다.

문득 일정 내내 내렸던 강렬한 빗줄기가 떠오릅니다. 이따금 내린 폭우로 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매우 뜨거웠던 미얀마의 열기를 식혀주는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얀마 봉사활동에서 저는 정말 많은 추억과 소중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봉사단분들과의 인연, 아이들과의 추억. 쉽지만은 않았던 봉사였지만, 그랬기에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는 게 아닐까 합니다.

또 다른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을 만큼 좋았던 7월의 일주일,
후기를 쓰는 지금 그곳의 열기와 열정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봅니다.

글 삼성물산(상사) 김요한
사진 삼성물산(상사)

사회공헌활동

현대자동차 **서비스사업부**

현대자동차 서비스사업부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2015년부터 매년 개발도상국에 현대자동차 최고의 정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선진정비기술을 전파하고, 현지 교사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정비기술 해외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대 · 코이카 드림센터에서 진행된 1, 2회에 이어 3회를 맞이하는 이번 재능기부봉사활동은 베트남 현대 · 코이카 드림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현대차의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선발된 우수 엔지니어와 서비스 사업부 임직원 13명은 베트남 현지 정비학교 교수 15명과 학생 30명, 현지 현대차 대리점 정비사 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정비 기초이론과 신기술 교육은 물론이고, 맞춤형 정비 실습교육을 통해 수강생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선진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정비기술 해외 재능기부 활동이 진행된 현대 · 코이카 드림센터는 현대차와 코이카, 플랜코리아 등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저개발국가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민관협력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입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사업부는 정비기술 해외 재능기부봉사활동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서울시 환경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화(化)려한 손길' 캠페인을 통해 남영역 입구, 서울역 고가, 한강중학교 벽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공공디자인 페인팅, 까치울터널 벽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울시 곳곳에 아름다움과 활력을 부여했습니다. '아빠!어디가?' 활동을 통해서는 아빠와 자녀가 농촌에서 함께 숙식하고 수확기에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며 봉사와 나눔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사업부는 앞으로도 사업부가 가진 선진정비역량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하여 봉사수행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촌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봉사활동 후기

2015년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정비기술 해외재능기부'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담당자로서의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음 가 보는 '해외봉사활동'이기 때문인지 전날 밤을 거의 지새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재능기부봉사단과 합류해 자동차 정비용 장비로 가득 찬 트렁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세관직원들을 통과해 드디어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건설된 현대 · 코이카 드림센터 4호교에는 다양한 나이의 열정 넘치는 학생이 가득 있었습니다. 버스로 10시간이 걸리는 먼 곳에서 현대자동차의 정비기술을 배우기 위해 왔다는 현지 자동차판매점 정비사부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업을 듣던 15살 학생까지, 많은 현지인이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긴장했던 모습도 잠시, 강의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정비기술과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정비사님들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환경, 다른 언어 속에서 생긴 긴장은 금세 사라지고, 현지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기 쉽게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정비사님들은 몸짓, 손짓, 눈빛까지 총동원해 열띤 강의를 펼치셨습니다.

강의는 엔진고장 진단, 변속기 진단, 자동차 에어컨 정비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고 새로 배운 정비기술을 시연하고 싶을 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해줬습니다.

정비사팀이 강의하는 동안, 봉사 진행팀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도장 부스에 새 옷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도장 부스를 보니 페인트칠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찰나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모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2박 3일간의 교육. 우리의 이번 활동이 학생들의 배움의 열망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겠지만, 이들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미래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지만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해주게 되리라 믿어봅니다.

이번 봉사활동도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님의 교육을 받고 관련 문제를 풀며 기뻐하던 한 학생의 모습, 학생들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짓던 정비사님의 모습은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이 기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마음으로 하는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지원팀 최성재

꿈을 위한 길을 만들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해외 봉사단을 필리핀으로 파견했으며, 올해로 3기를 맞이하는 봉사단 30명은 5개 조로 나누어 노력 · 문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인 데이케어센터를 보다 깨끗하고 아동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내외벽에 밝은 바탕색과 벽화를 그려 넣었다. 헬스케어센터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히 분만실과 회복실을 꼼꼼히 보수했다. 로페드베가 고등학교에서는 비만 내리면 진흙탕으로 바뀌는 학교 내 주요 통행로를 단단한 시멘트로 채워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학교 주변으로 울타리를 설치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날에는 마을 아동들과 주민들과 모두 모여 함께 구슬 공예, 풍선 아트, 에코백 꾸미기, 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응용기술개발팀
김상현

난 아직도 추억에 젖어 있다.
업무 중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의 순수한 눈과 밝은 미소가 떠오른다.

5박 7일의 일정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아쉬운 북사마르에서의 마지막 날, 몇 명의 아이들이 준 편지 속 정성스러운 장식과 어설픈 한글에서 나는 아이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좀 더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면'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계속 들었다. 아이들과 우리는 봉사단 단복과 사마르섬의 전통모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3가지를 얻었다. 우선 '타인을 도우며 힐링을 얻는 봉사활동의 참 맛',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번째로 '회사에 대한 자긍심'. 입사 6년차를 지나며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감 등으로 힘들 때가 있었는데 '철, 그 이상의 가치창조'와 '상생'이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하는 현대제철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 이번 봉사를 계기로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함께 땀을 흘린 소중한 "현대제철 글로벌 봉사단 3기"라는 인연이 그것이다.

소중한 한국의 일상으로 돌아오니 존경받는 집안의 가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되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설계할 것이다. 북사마르 섬의 아이들이 언제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한다. 아이들이 항상 꿈을 그리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During your life, never stop dreaming.
No one can take away your dreams."**

법무팀
이정용

마닐라에 도착하고서도 비행기로 한 시간 반을 더 들어가야 하는 북사마르 섬. 도착해서도 내린 빗속을 뚫고 학교에 가까워져 갈수록 쿵쿵 땅을 울리는 천둥소리가 커져만 간다. 교문에 들어서자 터져 나오는 아이들의 엄청난 환호와 북소리. 쿵쿵대던 천둥소리가 사실은 환영의 북소리였음을 알게 된 순간, 일정에 대한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드디어 시작된 봉사활동. 초중고교가 한 데 몰려 있는 산속에서 이따금 내리는 빗 속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엮었다. 작업을 하며 비지땀을 흘리는 동안 우리를 쳐다보는 호기심 어린 반짝이는 눈망울, 쉬는 시간마다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며 수줍게 다가오는 순수함에 반해 우리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욕심이 생겨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공사를 빠듯하게 진행했던 봉사활동 마지막 날. 아이들은 서툰 한글로 정성스레 쓴 손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답례로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표정, 환호 소리 그리고 어색한 한국어로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전하는 아이들 덕분인지 떠나는 길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저씨도 몇몇 보였다.

해외 봉사단에 신청했다고 하자 동료들은 일 년에 단 한 번 주어지는 달콤한 여름휴가를 봉사에 쓰는 바보라고 놀리거나, 국내에도 봉사할 곳이 넘쳐나는데 뭐 하러 해외까지 나가냐, 짧은 기간에 무얼 할 수 있겠냐는 등 핀잔을 보내기도 했다. 물론,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위해 한 일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작은 웃음을 조금씩 세상에 옮겨내는 바보들이 많아진다면 언젠가는 산을 옮겨내는 바보(우공이산: 愚公移山)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멀리서 바라본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바보가 되세요!"**

꿈의 나래를 펼쳐봐

식지 않은 나래바의 인기가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 그대로 재연되었다.
저개발국 아이들의 꿈이 마음껏 펼쳐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박나래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꿈의 나래를 펼쳐봐" 캠페인이 진행된 것.

파도풀을 가득 메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박나래 홍보대사의 신나는 디제잉 쇼가 펼쳐졌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만한 신나는 무대였다. 음악과 함께 다양한 나눔체험을 할 수 있는 나눔체험 부스에서는 다채로운 캠페인과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박나래 홍보대사가 직접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고, 여자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포토이벤트에도 참여하며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과 저개발국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했다. 즐겁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이벤트로 많은 방문객의 참여가 이어졌다.

박나래 홍보대사는 "아직도 세계에서는 많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조혼, 이른 출산, 노동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며 "플랜코리아와 함께 여자아이들이 꿈의 나래를 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모든 방문객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아이의
꿈의 나래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꿈의 나래를 펼쳐봐
영상으로 만나기

띵동, '편지'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일을 맞아 신이 난 '아바고잠'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자신을 의젓한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암소가
아기를 가졌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마냥 어린아이 같은
귀여운 아바고잠을 만나보세요.

후원자님의 편지는 후원아동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아동에게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편지

"

안녕 아바고잠!
오랜만이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이젠 너와 만난 지도 꽤 되었구나.
벌써 8년쯤 되었으니 이제 예쁜 어린 숙녀로 자랐겠구나.
자주 소식 전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그래도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접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멀리서도 언제나 널 응원할게!
항상 건강하거라.

그리고 곧 다가올 너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

후원아동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

letter@plankorea.or.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31 H스퀘어 S동 912호 플랜코리아 (우:13494)
* 한글 편지 20일, 영어 편지 25일까지 도착 시 당월 말일 발송합니다.

* 편지 선정 시 사전 연락을 드려 공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소개된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에게는 소정의 The좋은가게 선물을 드립니다.

아바고잠의 편지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저의 마음을 담은 인사를 보내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가족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후원자님과 우리 모두
즐겁고 축복 가득한 날을 보내길 바라요.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저도 후원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할게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암소 한 마리가 있는데
얼룩무늬의 예쁜 암소예요.
이곳에서는 얼룩무늬를 '부리' 라고 한답니다.
이 암소는 부모님께서 제게 선물해 주셨어요.

참 암소가 얼마 전 임신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유를 주기도 하고
나중에 송아지를 낳아 주기도 하니
참 고마운 존재에요.
두 마리 소를 기르게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럼 다음 편지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아바고잠 드림

GIVE SQUARE PLAN INTERNATIONAL 지구촌 어린이들의 꿈 플랜코리아

KT기브스퀘어와 플랜코리아가 함께하는

글로벌 나눔 캠페인

기브스퀘어는 봉사활동을 더 가치있게 만드는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새로운 사회공헌 플랫폼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글로벌 나눔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How to?

1. 로그인
www.givesq.org

2. 봉사 조회

3. 봉사 신청

4. 봉사 참여

5. 포인트 적립

6.플랜코리아의
'인도 ICT기반 교육환경 개선 사업'
캠페인 선택 후 **포인트 기부!**

인도 ICT기반 교육환경 개선사업

여러분의 소중한 포인트는
인도 델리 북동부 슬럼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ICT 교육 및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 그림찾기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참여방법 1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업로드!

or

참여방법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7년
겨울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지난 호 정답▶

여름호 이벤트 당첨자

강성태(인천) **강환이**(인천) **김민자**(성남)
박신애(춘천) **조용환**(대전)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The좋은가게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플랜코리아 소식

신나는 웃음과 나눔의 현장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참여

플랜코리아가 제5회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개막식 현장에 함께했다. 개막식 현장을 찾은 시민 및 관객을 대상으로 개그맨 홍보대사들이 다녀온 봉사활동 사진전, 지구촌 아이들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적기, 나눔 뽑기 이벤트 등 쉽고 재미있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플랜코리아 캠페인 부스 현장을 찾은 홍인규, 김준호 홍보대사는 함께 관객들에게 플랜코리아를 소개하고 나눔에 함께해 줄 것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진 홍보대사와 플랜코리아 영어토론대회 '서울오픈 2017' 참여

플랜코리아가 오상진 홍보대사가 주최하는 국제 영어토론대회 '서울오픈 2017'에 함께했다. 서울오픈은 글로벌 청소년들 간의 장벽 없는 소통과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영어토론대회로 50개국 1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사회 · 경제 · 문화 · 정치 · 외교를 포함해 플랜코리아가 발의한 개발원조를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국제 NGO 단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기부와 나눔, 봉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는 평이다. 플랜코리아는 주제발의와 더불어 시상에도 참여했다.

동아ST, 의약품 8천개 동아프리카 기니에 전달

지난해 동아ST가 지원한 의약품이 서아프리카 기니에 전달됐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극빈국에 속하는 기니는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들이 찰과상이나 피부병 등을 방치해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지원된 상처치료제 8천여 개는 기니 내 117개 학교에 배분됐다. 또 교사,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품을 소개하고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의약품 지원을 통해 5만5천 명의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플랜코리아와 MBC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제작 협약

플랜코리아가 MBC나눔과 함께 글로벌 나눔프로젝트 'MBC와 좋은 친구들' 공동 방송 제작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플랜코리아와 MBC가 공동 제작하는 'MBC와 좋은친구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플랜코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출연해 지구촌 아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MBC와 좋은 친구들'은 11월 방송된다.

삼성물산(건설), 인도 뭄바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준공식 개최

삼성물산(건설)이 인도 뭄바이 빈민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 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도 뭄바이 반두프, 물룬드, 다다르 등 3개 지역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본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 대상 아동친화 학습공간 조성, 급수 및 위생 시설 설치, 도서관 및 놀이시설이 지원됐다. 더불어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아동교육권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해 학생들이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매년 3,5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랜코리아의 새로운 가족 이기우, 안재홍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기우, 안재홍이 플랜코리아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위촉식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지원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 두 홍보대사는 향후 플랜코리아의 온 · 오프라인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위촉식에서 안재홍 홍보대사는"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위해 플랜코리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이기우 홍보대사는 "지구촌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플랜지구촌 소식

교육은 모든 것의 유일한 해결책 '말랄라의 날'

'여성의 학교 갈 자유'를 외치다 탈레반에 의해 총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성인권 활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7월 12일은 그녀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말랄라의 날'이다. 이날 세계 곳곳에서는 모든 소녀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와 기념행사 등이 활발히 열린다. 플랜 또한 여자아이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에게 교육받을 자유가 있다고 믿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글로벌 목표로 설정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6월 12일은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다. 오늘날, 학교가 아닌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미성년 아동의 수는 최소 2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수많은 아이를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랜은 각 활동지역에서 아동노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팀은 주기적으로 담당 지역을 방문하고 모니터링한다. 아동 노동 사례가 발견되면 아동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아동을 학교로 돌려보내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 및 지역 사회 내에서 지속해서 노동 반대 캠페인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의 저널리스트! 울리히 위커트 특별상 여아권리모임

짐바브웨 난민촌 중 하나인 에프워스. 플랜이 이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여아권리모임이 2017 울리히 위커트 특별상을 받았다. 울리히 위커트 재단은 매년 어린이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공헌한 기사, 기자 등을 선별하여 수상하고 있다. 여아권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소녀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방송 혹은 신문잡지 등에 실릴 아동권리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한다. 이 소녀들은 '2016년 세계 여자아이의 날' 직업체험 캠페인을 위해 짐바브웨 국립신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친구가 된 두 청소년 관계개선 프로젝트 '사랑의 길'

플랜은 콜롬비아에서 관계개선 프로젝트 '사랑의 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자신이 가진 권리와 행동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우게 된다. 또한, 학교와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간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얼마나 옳지 않은 행위인지 배우고 과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카밀로와 키아라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행된 이후, 학생들 간 갈등이 많이 사라졌다. 카밀로 또한 키아라를 괴롭혔었지만, 이제 이들은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됐다.

미래를 달리는 바퀴 케냐 아이들을 지키는 자전거

플랜은 세계 자전거 구호(World Bicycle Relief)와 함께 케냐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자전거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케냐의 아이들은 대다수 먼 거리를 이동해서 학교에 가는데, 이 길에서는 야생동물, 강도, 납치 등 각종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1,500대 이상의 자전거가 지원됐으며 이 중 1,000대는 여자아이에게 지급되었다. 교통이 귀한 저개발국에서 자전거는 마을, 학교, 집, 시장으로의 이동시간을 절약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이다. 또 길거리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을 주기도 한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토론 제12회 G20 정상회담 참석

플랜 대표 앤-버짓 알브렉센은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번 회담 주제는 '상호 연결된 세계'로서, 플랜은 세계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 세계가 연합하여 아이들을 지원해야만 하며, 특히 여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교육기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며 필요한 독립심, 협동심, 사회능력 등을 길러주는 복합 발전공간으로서 특히 저개발국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곳이다.

프란체스카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물리 샤니! (Muli Shani;잠비아어로 안녕하세요)

잠비아에 사는 열세 살 프란체스카입니다.
4년 전부터 플랜의 후원을 받고 있어요.

플랜에서 마을에 학교, 보건소, 우물을 지어줬어요.
덕분에 마을 친구들이 더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저도 나중에 꼭 선생님이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알려 줄 거에요.

후원아동으로 지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후원자님, 감사해요!

프란체스카의 하루
영상으로 만나기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남 □여

연락처: e-mail:

주소:

해외아동결연후원 (월 3만원)

저는 _____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지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성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한국어 □영어

특별정기후원 (월 만원)

지원분야 □해외사업 □국내사업

후원금결제방법

□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따로 연락을 드려 세부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등록, 소식제공,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아동 개인정보 수집 보호자 동의) □**동의함**

관계 법정대리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ID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1544-3222 kno@plankorea.or.kr www.plankorea.or.kr

The좋은가게

Hot Item

스테인리스 텀블러
가을을 준비하는 방법
텀블러와 함께 가을 나들이 가세요~
50% 한정 세일, 놓치지 마세요!

10,500원 (20개 한정)

Hot Item

The좋은노트 시즌2
NEW 시리즈!
유니버스, 드림, 정글, 제주도
깔끔한 무지 내지, 총 64페이지

10,000원 (4개 1세트)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The좋은가게에서 구매해보세요.

세계지도

한복카드

포스트잇

카드지갑
파격가 1,000원
(재고 소진 시까지)

퍼즐카드
파격가 1,000원
(재고 소진 시까지)

The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7

후원문의 1544-3222
www.plankorea.or.kr

PLAN INTERNATIONAL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